

불교계 아동위탁 현실 “부끄럽다”

의정부 회동사 신도 김정아(42·의정부시 가동동)씨에게 혜정5·가명은 가슴으로 낳은 딸이다. 김씨 부부의 친자녀들보다 혜정을 친동생으로 생각한다.

김씨 가족이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혜정을 만난 지 겨우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혜정이 없는 일상생활은 생각할 수도 없다. '친부모가 이혼하면서 위탁센터로 오게 된 혜정은 처음에는 낯을 가렸으나 이제는 김 씨를 '큰엄마'라 부르며 따르고 있다.

혜정이가 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불교유치원에 입학 시키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 김 씨는 "다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라고 반문한다.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아동복지방안 중 하나인 위탁가정에 대한 우려사회의 관심이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다. 가정위탁사업은 보호받을 가정이 없거나 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등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일정기간 일반가정에서 위탁 양육하는 아동복

70% 가까이 기독교 가정서 돌봐
불교계 지원센터 한 곳도 없어
입양장려 캠페인 적극 벌여야

지 프로그램이다.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야 하는 입양제도와는 달리 친권자가 있지만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위탁아동의 수는 1만198명에 이른다. 이런 수치는 2003년 7565명에 비해 34.8%나 급증한 것이다. 가정위탁아동 수는 2000년 1772명, 2001년 4425명, 2002년 5577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불교계의 대처와 지원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위탁아동과 가정을 연결해주는 대부분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기독교계 복지재단에 의해 설립된 곳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2003년부터 가정위탁지원

센터를 전국 17곳에 설치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센터는 전부 기독교계 인사와 관련 있거나 기독교 복지재단이 설립한 곳이다.

이에 대해 불교아동복지 종사자들은 "비교적 신규사업인 가정위탁 지원센터를 기독교가 선점한 것은 불교계의 '아동복지'에 대한 형편 없는 관심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박찬정 부장은 "이미 2003년부터 전국 17곳에 설립해 지방이양까지 끝마친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더 늘리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불가정들을 상대로 한 입양장려 캠페인과 아동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단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더 많

은 불자들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탁기관 뿐 아니라 위탁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위탁가정들 역시,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다. 한국복지재단이 지난 5월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아동들을 돌보고 있는 일반 위탁가정 470가구를 조사한 결과 기독교 가정은 66.8%에 이르는 반면 불교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가정 부모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도 목사나 전도사 등 교회에 종사한다는 대답이 전체의 30.4%에 달했다. 특히 장애아를 돌보는 위탁가정은 모두 기독교인이었다.

지난해부터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영호(2·가명)를 돌보고 있는 불자 최영란(38·인천 서구)씨는 "불자가 전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데도 불자가정은 위탁아동에 대한 관심이 저조해 안타깝다"며 "어린 시절 기독교계 가정에서 양육된 아이들은 기독교를 모태신앙처럼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은비 기자 renv@buddhapia.com



위안부 피해 할머니 109명 외교통상부 상대로 헌법소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9명이 7월 5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사건).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10여명과 나눈의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등 시민단체회원 30여명은 "위안부 피해자 책임문제에 대해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 이유를 밝혔다.

할머니들은 지난해 8월 한일협정 외교문서가 공개된 이후 '외교통상부는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해왔다. 그러나 외교통상부가 지난 4월 10일 '군대 위안부 피해자 보상관련 일본측과의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물질적인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보내오자 '더 이상 국가의 답변만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 끝에 이번 소원을 제출한 것이다.

한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외교통상부의 성명에 항의하는 뜻으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매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은비 기자

'총장후보 추천위' 반대 동국대 교수회

동국대 서울캠퍼스 교수회가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반대 및 참여거부를 재결의했다.

서울캠퍼스 교수회는 7월 6일 교내 상록원에서 교수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이사회에서 통과된 '총추위'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한·미 FTA 협상중단 촉구 4대 종교인 선언문 발표

불교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교연대 등 4대 종교 환경단체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는 7월 6일 '한·미 FTA 협상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종교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4대 종교인들은 선언문에서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그 정도는 지금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우리 종교인들은 노무현 정부에게 우리 사회의 힘있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공평선의 이념으로 보호받을 제도적 장치와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회계사 수험·환경 법회

송산 스님의 수행가풍이 숨쉬는 서울 회계사주지 수경는 7월 16일부터 매주 일요일 수행·환경·문화회를 대표하는 법사를 초청, 회계사 대외평전에서 특별법회를 연다.

법사는 빈그릇운동을 이끌고 있는 정토회 법륜 스님(16일), 문화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통도사 축서암 수안 스님(23일)이 나선다.

25일에는 학림사 오동선원 조실 대원 스님을 법사로 법회를 연다. 회계사 특별법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시작된다.

조용수 기자

한국불교학연구기금 7월 30일까지 접수

불교 소장학자들의 연구지원금을 펼치고 있는 한국불교학연구기금(상임대표 법상이) '제3회 불교소장학자 연구·번역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분야는 불교관련 박사논문, 원전 및 외국어 단행본, 외국인 연구자 학위논문 등이다.

7월 24~30일까지 접수이며, 8월 말까지 심사를 거쳐 9월 중 선정자를 발표한다. (02)539-2631~4

노병철 기자

목탁소리

총장후보자추천위 강행, 경주 교수회 징계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동국대가 또다시 법대 교수의 성추행 사건으로 시끄럽다. 로스를 지정을 앞두고 대학당국은 쉬쉬하는 모양이지만 이미 알려진 사실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 지난 6월 28일 동국대 이사회도 교수 성추행 논란을 빚고 있는 동국대 법대 교수 성추행 시골

'오' 교수는 석사, 박사 과정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 지난 2003년 이사회에서 전공불일치를 이유로 임용이 부결됐던 인물이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이듬해인 2004년 마땅한 해명도 없이 슬그머니 그를 전임강사로 임용했다. 그런 교수가 지난해부터 제자들을 성(性)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최근에는 피

해자 중의 한명이 다른 피해 여학생들과 교내 성윤리위원회에 '오' 교수를 처벌해 달라며 진정을 내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홍기삼 총장은 28일 이사회에서 '성추행 사건의 본질이 과내 교수들 간의 정치적 알력 때문에 불거진 사소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이사회들에게 총장의 답변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게 받아들여졌는지 알 수 없지만 교직원들은 "총장이 교수 개인의 잘못된 행실을 지적하면 될 것을, 법과대학 전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프했다"며 불쾌한 반응이다.

교육자로서 제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수가 불명예스러운 성추행에 연루가 됐는데도 피해자나 가해자 양쪽의 주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쉬쉬하면서 처리를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이 피리를 물고 있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이 절실해 보인다.

■조용수(취재부 기자)

찬송가 울려 퍼진 용인시장 취임식

"외부서 선곡...물랐다"발뺌

7월 3일 열린 용인시장 취임식에서 기독교찬송가를 축가로 불러 지 역불교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시사민연합회장 자광 스님(반야선원 주지)은 "용인시장 취임식장에 참석했는데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등 마치 교회행사 같은 분위기였다"며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앞으로는 절대로 종교편향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발했다.

사건이 확산되자 행사를 주관한 용인시장 행정과는 "축가는 외부에서 불러온 중장단이 선정했고, 사전에 독일어로는 설명과 함께 곡명을 받았지만 찬송가인지 몰랐다"며 의도적인 선곡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용인시사민연합회는 7월 5일 용인시장 앞으로 서면질의서를 발송하는 한편, 종교편향 행사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와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바봉영 기자

"템플스테이 사업 전적으로 신뢰"

운영사찰 주지회의 결의

최근 모 불교계 인터넷 언론에 의해 제기됐던 템플스테이 운영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사님이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7월 5일 개최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임시 주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템플

스테이 사업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와 격려를 보낸다 △보다 투명한 템플스테이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성공적인 템플스테이 운영에 더욱 매진한다 등을 결의했다. 회의에서는 또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주지사님 회의기구를 구성기로 했다.

남동우 기자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워크숍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사장 성운)은 7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인수발보험 중에서도 재가서비스의 한 분야인 '방문목욕'을 주제로 '노인수발보험법 2차 시범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 및 보건복지부 직원, 대학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들과 사회복지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오는 7월부터 수원, 안동, 강릉 등 8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2차 시범사업의 운영방향과 체계가 논의됐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간호수발, 방문목욕서비스 등의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그룹홈 등의 시설서비스,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확대 제공될 예정이다.

손일봉 보건복지부 노인양양제도 팀 사무관의 '노인수발보험시행에 따른 2차 시범사업기본계획', 정영숙 건강보험공단 급여심사부 부장의 '재가서비스(방문목욕)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발표에 이어 이태근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이동목욕팀 팀장이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방문목욕서비스 사례관리'를 발표했다.

이 팀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목욕단가를 높이고, 수발사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 활동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연옥 서울경기 이동목욕실무자연합회 부회장은 "현재 이동목욕서비스를 실시하는 복지관 및 기관은 서울, 경기지역에 만 50여 곳이 넘는다"며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담당자들의 이동이 잦기 때문에 이동목욕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파악, 대상자와 봉사자의 효율적인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적인 나눔, 실무자를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해 사업진행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반만년 민족혼을 찾아나서는 은빛바다 대항해

일연 聖師 탄생 800주년 기념 민족문화 뿌리 찾기

삼국유사 大祭典

■ 일시 : 2006년 7월 6일(목) ~ 8월 1일(화)

집중행사기간 | 7월 6일(탄생법회) | 7월 28일(전야제)
| 7월 29,30일(주제공연) | 8월 1일(입적법회)

■ 장소 : 경북 군위 인각사, 영천 은혜사 등 팔공산 일원

■ 주최 : 삼국유사 대제전 조직위원회

■ 후원 : 조계종 총무원, 문화관광부, 경상북도, 군위군, 경산시, 한국학 중앙연구원

■ 문의 : 054)383-1161 ■ 홈페이지 : www.ingaksa.org

7월 6일(목) 탄생법회 (11시, 군위 인각사)
경산시 주최 기념 음악회 (저녁 7시 30분, 경산 자인 계정순 특설무대)

7월 20일(목) ~ 21일(금) 삼국유사 국제학술대회 (9시 30분 ~, 경기도 성남시 한국학 중앙연구원)

7월 28일(금) 삼국유사 대제전 개막식 및 주제 공연 1부 (저녁 6시 30분, 인각사 특설무대)
일연 문화상 시상식
전국 청소년 문화상 시상식
전국 청소년 문학상 공모전 시상식
삼국유사 탐방답사
이하석 시인과 함께 떠나는 삼국유사 답사 (오전9시, 대구시민회관 출발)
경주 남산 일대, 분황사와 황룡사 터

7월 30일(일) 주제공연 2부 및 불꽃제 (저녁 7시 30분, 인각사 특설무대)

8월 1일(화) 일연선사 열반 717주기 추모다라재
보각구사 재현 제막식 (예정)

은빛바다에 솟은 인강대륙! 그곳에서 만나는 일연의 꿈, 민족의 꿈

일연선사 탄생 8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삼국유사 대제전) 행사는 민족 문화사에 길이 남을 삼국유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민족 정체성을 계승 발전하고자 마련한 민족문화축제입니다.

고려말기 외세의 침입과 지배층의 혼란에 시달리던 이 땅의 민중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일연선사가 평생을 바쳐 국토 곳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집필한 삼국유사는 우리민족 정신문화의 독창적 원형일뿐만 아니라 세계적 문화 가치를 지닌 자랑스런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이에 일연선사의 탄생 800주년을 맞아 오늘날 삼국유사가 지닌 문화사적 의미와 창조적 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김하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삼국유사 대제전)행사가 7월 6일(목)부터 8월 1일(화)까지 경북 군위 인각사, 영천 은혜사 등 팔공산 일대에서 축하 기념공연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행사로 지역민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